95
6072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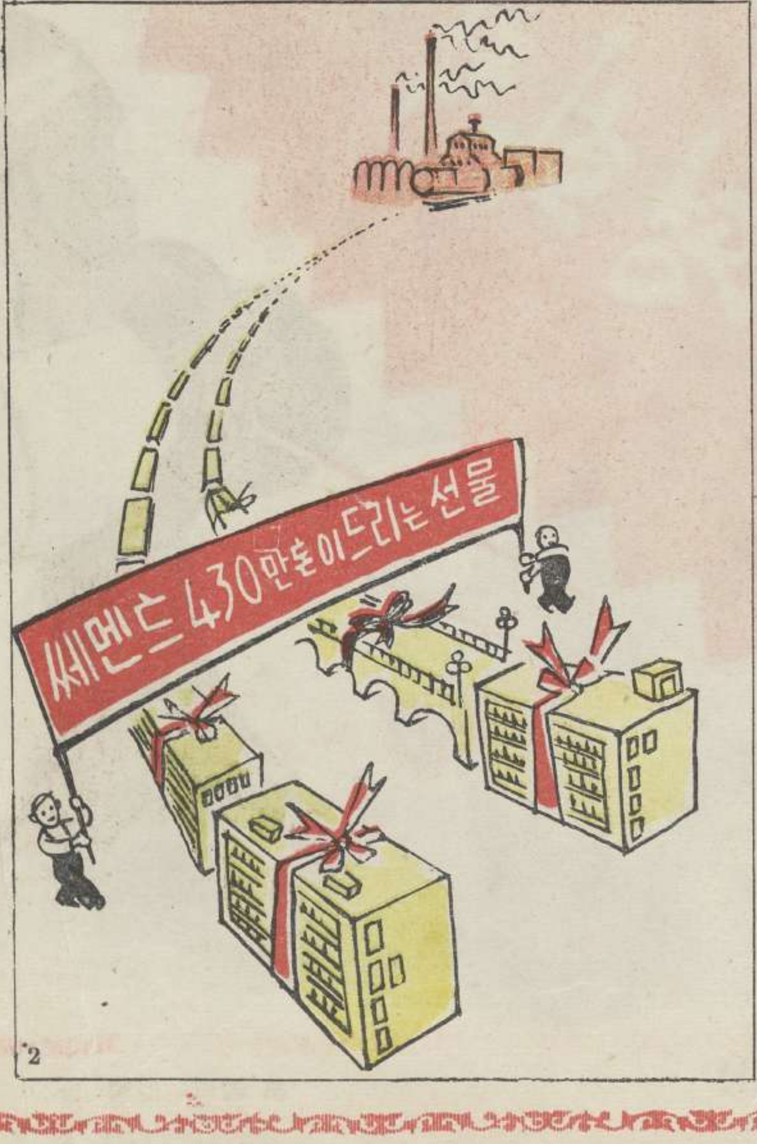
1960년 9월 상반호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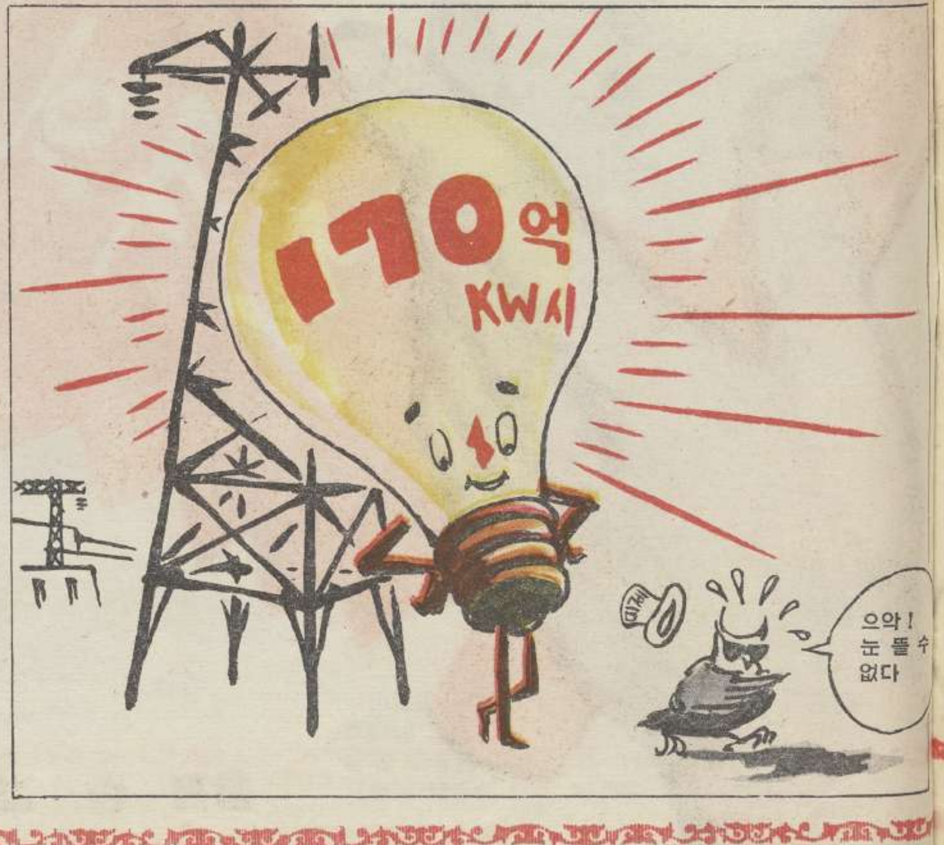
3- MAR17

함께 손 잡자!

허 능택 그림

7개년 계획의 웅대한 전망 공업총생산액 2.5배





최영근 그림

같은 광부의 다른 처지

북반부

남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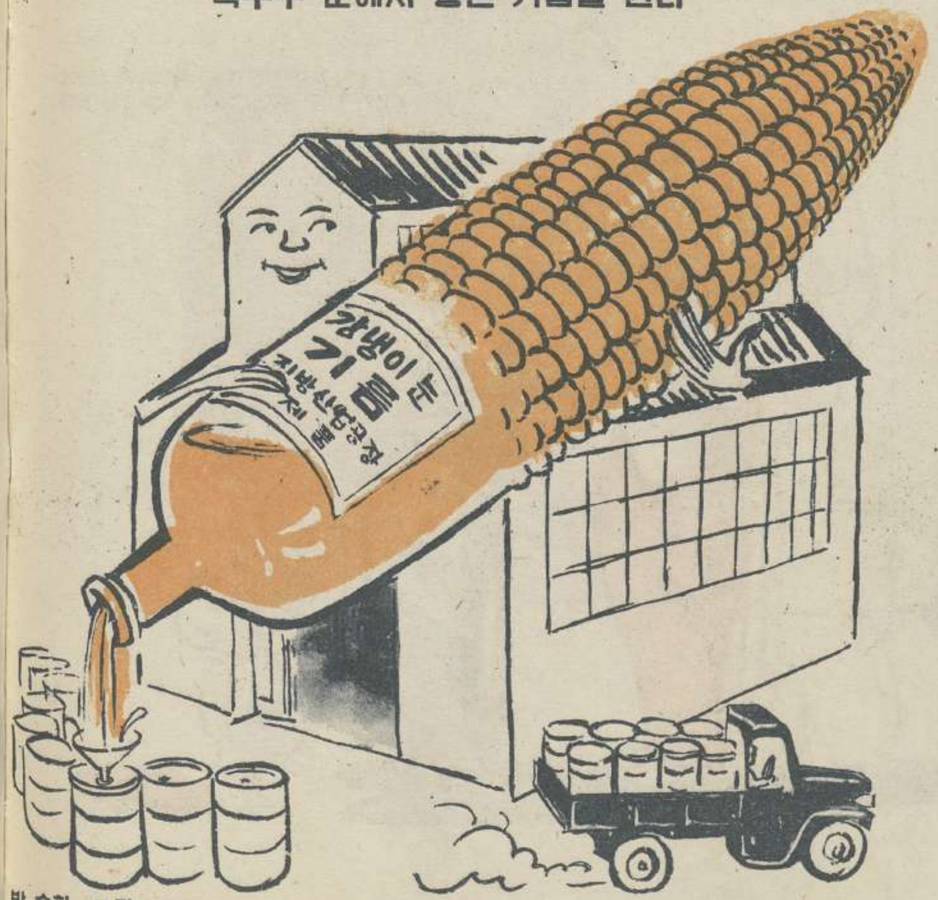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탄부의 어제와 오늘

을 아—, 아—, (가슴에 량손을 얹고)
갑 이 사람 왜 그러나?
을 요즘 내 가슴은 부글부글 끓고 있네
갑 아하— 이거 야단 났군 (뛰여 가려고 한다)
을 이, 이 사람아, 어디 가려고 하나?
갑 랭수를 떠 와야지
을 랭수는 왜?
갑 자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니? 꺼야 할 게 아닌가!
을 에키, 이 사람, 호하하…이렇게도 답답한 친구라구! 일제 때의 처지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니…
갑 글쎄, 난 일제 땐 탄부의 처지가 비참했다는,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밖에 모르지만…
을 그러니 내 심정을 알리가 있나?
갑 그래도 부글부글 끓기야 하겠나?
을 자넨 아주 몰라!
갑 뭘? 자네의 심사 말인가?
을 심사도 심사거니와 왜정 때의 탄부의 참상을…
갑 그럼 한 번 얘기해 보게나!
을 갱내에 들어 가기만 하면 숨이 콱콱 막히거든.
갑 왜?
을 왜라니, 오늘 날처럼 공기를 갈아 넣는 배기 갱이 없었단 말야, 그래서 우'롱을 부채 삼아 부치면서 일했으니 과히 알만하지?
갑 알만해! 삼복 더위 때는 가만이 앉아 있어두 숨이 막힌다는 사람이 있으니…
을 오늘처럼 갱내에 로동 보호 시설이 있는 줄 아는가? 동발도 채 대지 않고 막 캐 나갔네. 그러니 왜정 때는 부상 아니면 저승 가는 게 수두룩 했네.
갑 왜놈들이 그렇게 탄부들을 개 돼지 취급했는가?
을 말 말게! 놈들이 우리 탄부들을 채용할 때는 사망 신고서부터 먼저 떼다 놓고 썼단 말야!
갑 아이구— 당장 그놈들을 (을을 치려고 든다)
을 아, 아, 아, 날 치려는가?
갑 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북받쳐서…
을 그 때의 우리의 참상을 석달 열흘을 두고 얘기해두 끝이 없지.
갑 짐작할만 하네!
을 그런데 오늘의 우리 생활은
갑 우선 갱내의 공기가 좋아서
을 일해도 피곤을 모르고
갑 갱내 작업이 기계화 되였으니
을 일이 수월코 작업 능률이 오르고
갑 작업 능률이 오르니 국가 과제를 초과 완수하거든!
을 그러니 칭찬 받고 초과 상금 받고, 꿩 먹고 알 먹기거든!
갑 그 뿐인가! 초과 상금 외에 입갱 가급금, 근무 년한 가급금, 야간 근무 가급금,
을 그 뿐인가! 콩기름, 고기, 어물, 물엿, 간유 등의 영양제를 받고
갑 작업복, 지하족 지어는 마스크까지 모두 무료로 받으니, 얼씨구 절씨구 탄부의 영예감 한 없이 크네.
을 여보게, 국가의 배려를 일일이 얘기하자니 끝이 없네, 내 심사가 부글부글 끓는단 걸 인젠 알만하지? 감격과 영예와 행복에 들끓는 오늘의 내 심사를…
갑 알만하이, 특히 왜정 때 탄부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자네의 심사를, 오늘은 생활이 날로 꽃피고 있으니 말야,
을 이 감격, 이 영예를 증산으로 보답하겠네.
갑 나두 자네와 똑 같이 맹세하네. 같이 나아가세!

피 호주

옥수수 눈에서 좋은 기름을 짠다



박 승히 그림

프레스의 대렬이 늘어간다

최 영근 그림

김 진호 그림

—여기가 야간 대학이냐?
—아니예요 우리 공장 합숙입니다

종이'장 보수

송 시엽 그림

본궁 화학 공장 공무부에서는 설비 보수 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형식주의자 보고 듣는다

박 승히 그림

일부 일'군들은 급한 고비를 넘겼으니 한숨 쉬자는 격으로 직접 현지에 나갈 대신에 리 담당 지도원들에게서 받는 번잡한 통계와 문서에서 <실정>을 알려고 하며 담당 지도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지도를 대치하고 있다.

성진 제강소 일부 일'군들은 변압기유 취급에서 무책임한 결과 귀중한 외화를 랑비하고 있다.

—얘야 흘리지 말어!

홍 종호 그림

절약 주머니와 기사장

어느 날 신의주 고무 공장에는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이 공장 제품인 남자 신발과 녀자 편리화를 들고 공장 지도부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공장 방문에 대한 손님들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남자 신발 녀자 신발 할 것 없이 맵씨가 아름답지 못하고 평바닥인데다가 신바닥이 어찌나 무거운지 활동상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화란 신발 이름이나 운동화란 이름이 불합리 하다는 것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난 한 손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내 생각 같애서는 원단위 소비 기준을 조곰씩 낮추고 불량품을 퇴치한다면,

첫째로 수요자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 좋구, 둘째로 수입 원료 생고무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일거 량득일 것 같수다…》

기사장을 비롯한 일부 공장 관리 일'군들은 손님의 의견을 들어보매 심상치 않았던지 얼굴에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후 공장 로동자들 속에서는 이 손님의 제의를 생산에 도입해 보자는 의견이 우세를 차지 하게되자 절약과 증산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로―루 직장에서는 재생 고무에 파다이야를 배합해서 생고무 함유량을 1.5%씩 축소했고 제화 직장에서도 데―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짤라내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래서 절약 주머니는 매일과 같이 불숙해졌다.

《자, 보라요. 수요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절약 주머니를 바라보는 제화, 로―루 직장 로동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 동시에 공장에는 난처한 일이 생겼다.

전열 애관이 산화된 수입 프레스기는 제구실을 못하고 며칠씩 멎군하였다.

제화 프레스 직장에 나타난 기사장을 보고 프레스 운전공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다.

《예비 부속을 마련해서 수입 프레스기의 가동을 보장해 주시요, 그리고 시계 동작을 하는 자동 개폐기를전직장에도입할 수 있도록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합작합시다. 그럼 신발이 설익어서 생기는 불량품을 퇴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 하 하, 그건 동무들이 절약과 증산에 대한 인식 부족이요, 눈 짐작으로해도 정신을 딱 차리고 동작하면 신발이 설리가 없소, 우리 기능자들에게 불량품이란 있을 수 없단 말이요,》

기사장이 돌아간 후 프레스공들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수군거렸다.

《1년에 560 만 켤레의 고무신과 100만 켤레의 운동화를 증산하는 예비가 어떻게 솟아 나올 수 있는가를 가지구, 우리 기사장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어…》

한 처녀 프레스 운전공이 말을 가로챘다.

《호소만 하면 되나요? 절약의 기본 고리를 찾고 기술적으로 걸리는 애로와 난관을 풀게 해야지…》

반년이 지나서 상반년 발란스 표가 나왔다.

상반년 총화에서 지배인은 발란스 표가 가리키는 대로 되씹어서 강조했다.

《프레스 직장에서는 수입 프레스기에 대한 예비 부속을 제때에 보장 못해서 가동률이 떨어졌고 국내산 프레스기는 예비 부속을 규격 대로 보장 못해서 신발이 설어서 불량품이 적지 않게 생겼소. 이래서 결국 생고무 랑비와 로력 랑비가 많았습니다》

기사장은 수입 원자재 절약이 신바닥에도 있고 설비 시설에도 있고 여기 저기에 얼마든지 묻혀 있다는 것이 떠 올랐던지 그의 머리는 점차 어깨 속으로 깊숙히 기여들어 갔다.

서 득창

천리마를 타려면

조 명식 그림 —나를 타려면 그 낡은 보따리를 버리시요.

출판물이 배포 되였다

(독자투고에 의하여) 김 진호 그림

조선 인민의 희망

《오늘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바로 잡으며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문제 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여 왔고 또 현실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실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전력, 석탄, 강철, 세멘트, 목재, 화학 비료 각종 기계 설비들이 남조선 경제의 복구와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리용될 것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 일성)

북반부

남반부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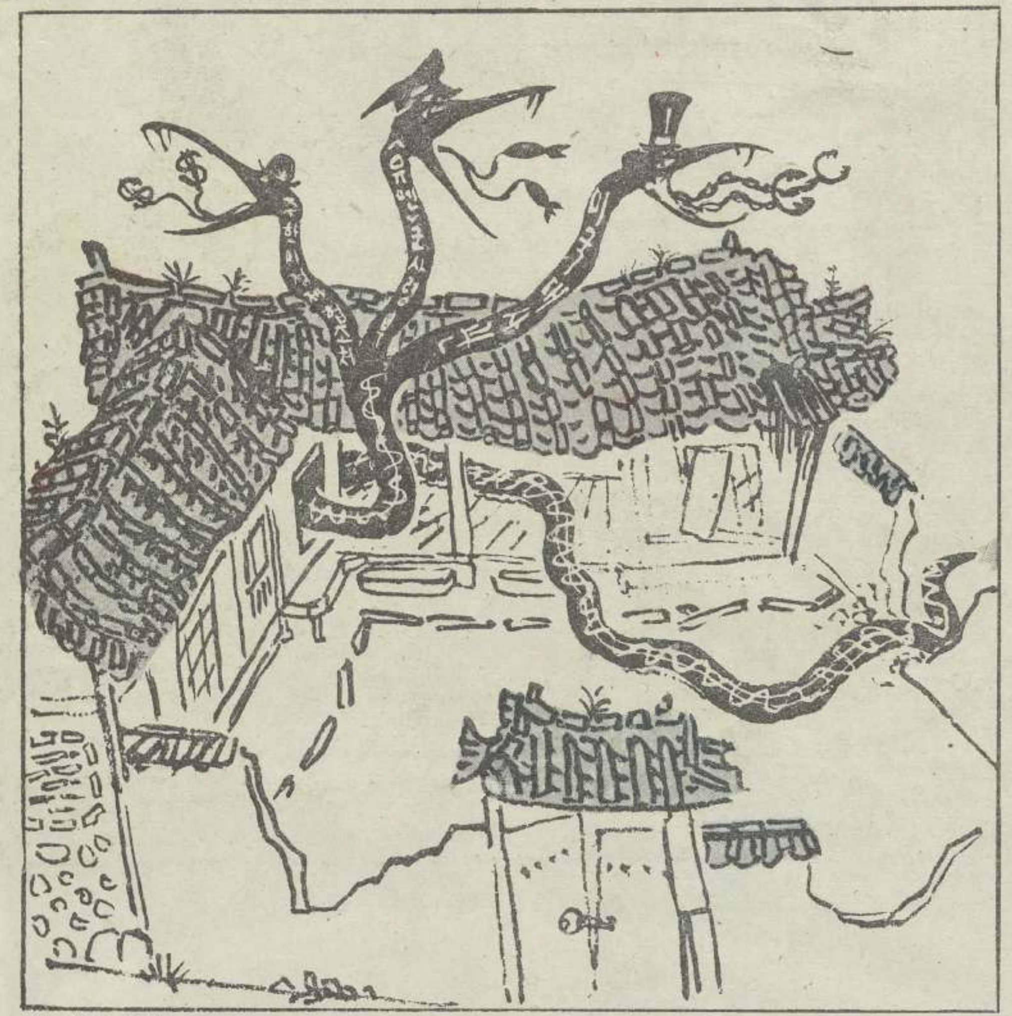
불멸의 공훈

안 창수 그림

지난 8월 19일에 쏘련에서 발사된 제 2 우주 비행선은 지구 주위를 17회 공전한 후 20일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4톤 600키로 그람에 달하는 제 2 우주 비행선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지구로 돌아 오게 함으로써 쏘베트 과학은 세계 과학 발전에서 뿐만아니라 력사에서 또 하나의 불멸의 공훈을 세웠다.

미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미경제협조처> <유엔군 사령관>등을 통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각부문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괴물



박 승히 그림

미제의 경제 침략 기구인 《주한 미 경제 협조처》 처장 모이어는 8월 11일 남조선 괴뢰 정부의 1961년도 《예산안》에 《동의 할 수 없》으니 《재검토 하라》고 괴뢰 당국에 《지시》하였다. 이는 미제가 괴뢰 정부의 재정권을 사실상 점탈하고 식민지 《총독》으로서 공공연히 행세하고 있다는 것을 립증한다.

주인 노릇

백 인균 그림

괴상한 훈련

리 철히

《저건 뭐야 저기서 영화 촬영을 하는 모양인가?》

《아니야! 촬영기도 보이지 않고 영화 감독도 없지 않아?》

《저기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키 큰 양키놈이 감독이 아니야?》

《아니 이건 영화 촬영은 아니야》

사람들은 철조망 주위에서 고아댔다.

아닌 게 아니라 철조망 안에서는 대단한 연극을 놀고 있었다.

우'통을 벗은 수 백 명의 경찰들이 프랑카트를 들고 8 렬로 행진하자 우—하고 저쪽에서 수 백 명의 경찰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맞달려 오드니 밀고 당기고 소리 지르며 일대 수라장을 이루었다.

경찰들은 연막탄과 최루 가스를 던졌으나 우'통을 벗은 놈들은 한사코 달려든다.

《스톱! 스톱! 멈추시오!》

키 큰 양키놈이 메가폰을 아가리에 대고 역정스럽게 외치자 정복한 경찰 패거리들과 우'통을 벗은 경찰 패거리들은 그 자리에 얼어 붙은듯 멈춰 서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건 뭐요? 그렇게 철 없으니까 학생들의 데모조차 막지 못했지! 바람 부는 방향도 고려하지 않고 연막탄 가스탄 던지는 바보들!》

해골의 눈구멍 같은 검은 안경을 번쩍 거리며 그는 개 벼룩 씹듯 턱을 떡따거리며 욕지거리를 하고 나서 다시 호령조로 웨쳤다.

《이번엔 소방 펌프에 의한 데모 저지 방법에 대한 훈련으로 들어가겠소. 레디 (준비)…원, 투, 쓰리》

우'통을 벗은 경관 대렬이 또 행진을 계속한다. 정복한 경관들은 소방차를 몰고 나오드니 그들의 머리 우에 소방 펌프의 물'줄기를 날렸다.

《스톱! 스톱! 까뗌! 소방수! 이게 무슨 꼴이요? 샤와 목욕 좋지 못합네다. 가슴팍에 물'줄기를 들여대지 않고 어떻게 막아냄내까? 당신 대한 민국 경찰 자격 없고 특히는 경비 주임 자격 없삽네다》《아 아닙니다. 데모대가 막 펌프 아가리를 빼앗으려들고 그걸 하늘쪽으로 올리니…》

《닥치시오! 당신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삽네다》

《아 아닙니다. 라니모 고문 각하 저…》

《그렇게 맥을 추지 못하니 지난 4월에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소방 자동차까지 탈취당한 것입니다. 나, 당신들 같은 멍텅구리 지도하는 것 대단히 불쾌합내다》

미국놈이 두 팔을 벌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자 경찰 국장이 냉큼 앞에 나섰다.

《불쾌하실겝니다. 고문 각하! 에—제군!》 괴뢰 경찰 국장은 괴뢰 경찰들을 빙 둘러보면서 위엄을 돋구어 일장 훈시를 하기 시작했다.

《에—금번 경찰국 산하 각 경찰서 경비 주임 및 기동대 주임들을 위한 시위 진압 단기 강습은 근 열흘 계속 되였지만 아무 성과가 없단 말이야! 제군은 기억하는가. 지난 4월과 5월의 사변을! 리 승만 대통령을 호위 못한 우리의 책임은 미국인들 앞에서 벗어날 수 없소.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우리 대한 민국 경찰의 임무는 절대로 변함이 없소. 미국 어른들은 허 정 각하나 장 면씨를 리 승만 박사와 똑 같이 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 그러니 로동자들이나 학생들이 또 들구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오—아니 그건 뻔한 일이요. 때문에 제군은 라니모 고문 각하의 지도에 절대 복종하여 시위 진압의 비결을 배워 경찰을 강화해야 한단 말이오》

물에 빠진 쥐새끼 같이 축축히 젖은 〈경비 주임〉들과 〈기동대 주임〉들은 기계 처럼 일제히 경례를 부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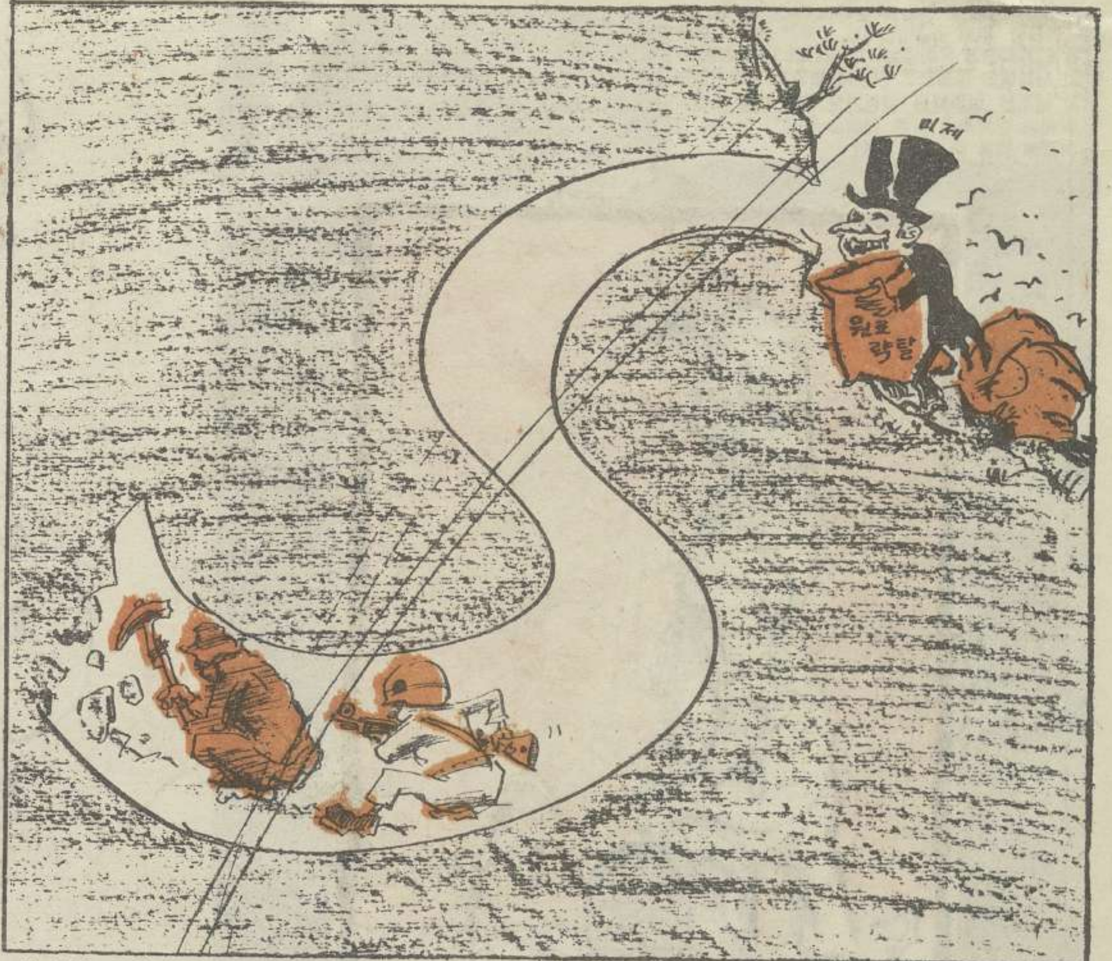
《그러면 훈련을 계속합시다. 이번엔 장갑차와 싸이드카에 의한 시위 진압 방법에 들어 가겠삽내다》

라니모가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선언했다. 쥐 새끼들은 또 충실한 강아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철조망 밖에서 구경하던 군중들은 흩어져 가면서 수군거렸다.

《세상에 별 훈련이 다 있군! 로동자들과 학생들은 리 승만의 동상을 끌고 다니는 훈련을 안했고 경찰서를 부시는 훈련을 안했어도 잘들 하던데 경찰은 훈련이 모자라 옴쭉을 못했나? 저따위 훈련이 다 뭐야! 이제 모든 남조선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국놈과 매국노들을 몰아낼 판이니 다라나는 훈련이나 잘 해 둘 게지…》

식민지 략탈의 굴



백 인균 그림

밀차 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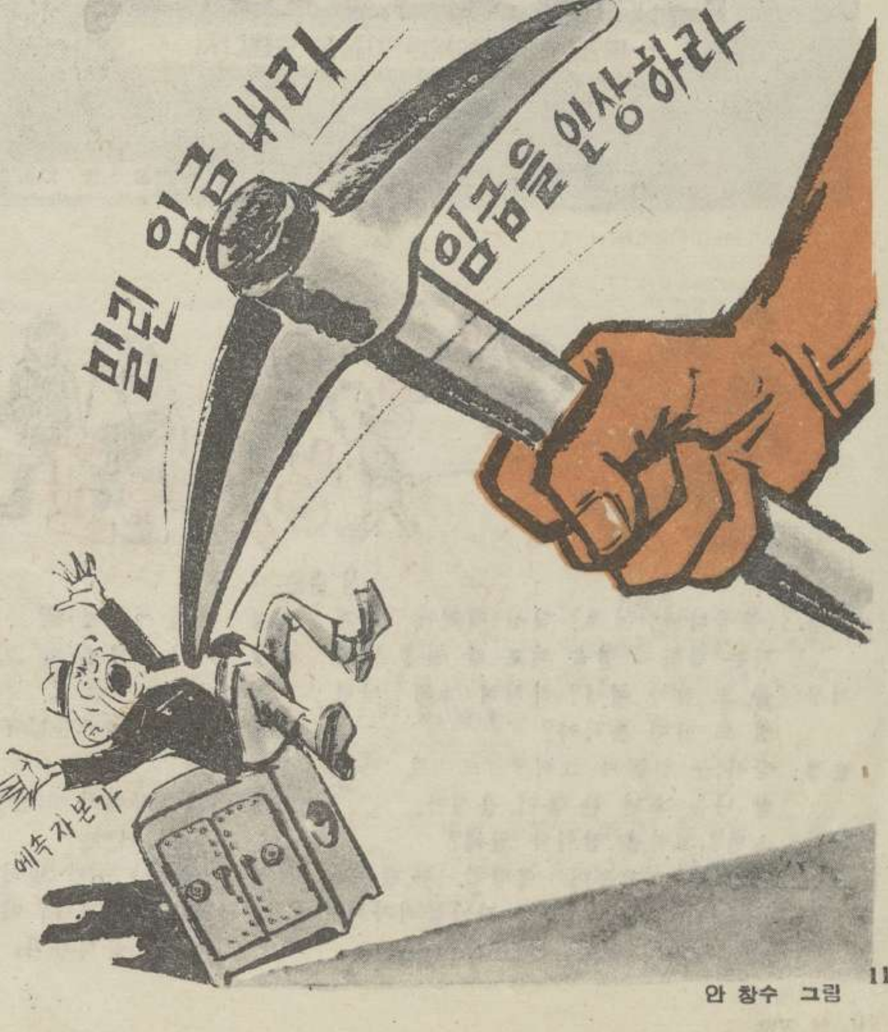
혹사 당하고

병신까지 됐다

백 인균 그림

참을 수 없다

최근 남조선 로동자들은 밀린 임금의 즉시 지불, 임금 인상, 대우 개선 등을 요구하여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남녘의 땅

미제와 괴뢰 도당이 지난 15년간 남조선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는데만 혈안이 되여 관개 수리 사업에는 털끝만한 관심도 돌리지 않았기때문에 남조선 농민들은 금년에도 이미 있은 수해에 뒤'이어 한재까지 입은 관개로 흉년파 더 혹심한 기근을 면할 수 없게 되였다

—북조선 농촌에서는 가물을 모른다지……

송 시엽 그림

짐은 늘었다

남조선 농민들은 1959년말 현재 무려 2천 500억환에 달하는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무거운》 고리 부채를 걸머졌다. 이것은 매개 농가마다 11만환 이상씩 고리 부채를 진 셈으로 된다.

조 명식 그림

경찰의 헛수고

신 홍순

순경 (등장하여) 보고! 혁신 세력에 관계되는 범인 2 명을 체포 해 왔습니닷!

서장 음, 또 잡아 왔어? 허허허 그래 이번엔 또 어떤 놈이야?

순경 장사'군 한놈과 그리구 또 열 다섯살 나는 소년 한 놈이 올시다.

서장 소년? 고따운 잡아다 뭘해?

순경 아닙니다. 고놈이 맹랑합니다.백주에 큰 길거리에서 <물러가라><물러가라> 허구 웨치고 있질 않겠습니까?

서장 뉘집 애새낀데?

순경 사회 대중당 김 모의 둘째 아들이랍니다.

서장 옳지 걸려 들었구나! 이리루 데려와!

순경 네. (밖에서 소년을 데리고 온다) 이 자식입니다.

서장 요놈아! 누가 널더러 그따위 소릴 웨치라구 시켰어? 어? 물러가라? 기성 정치인 물러가라, 그 말이지?

소년 아닙니다. 난 도둑개더러 물러가라구 한 겁니다.

서장 뭐 도둑개? 오 옳지 그럼 <미군 나가라!>

소년 미국 대사관 앞에 흰둥이 말이예요.

서장 뭐 미국 앞잡이 흰둥이? 그건 어더다 대구 허는 소리야? 민주당이야? 자유당이야? 망할 자식! (때린다)

소년 왜 때려요? 왜 때려? 이건 정말 도둑개예요, 나를 물라구 자꾸만 달라 붙길래 물러가라구 그런 건데요.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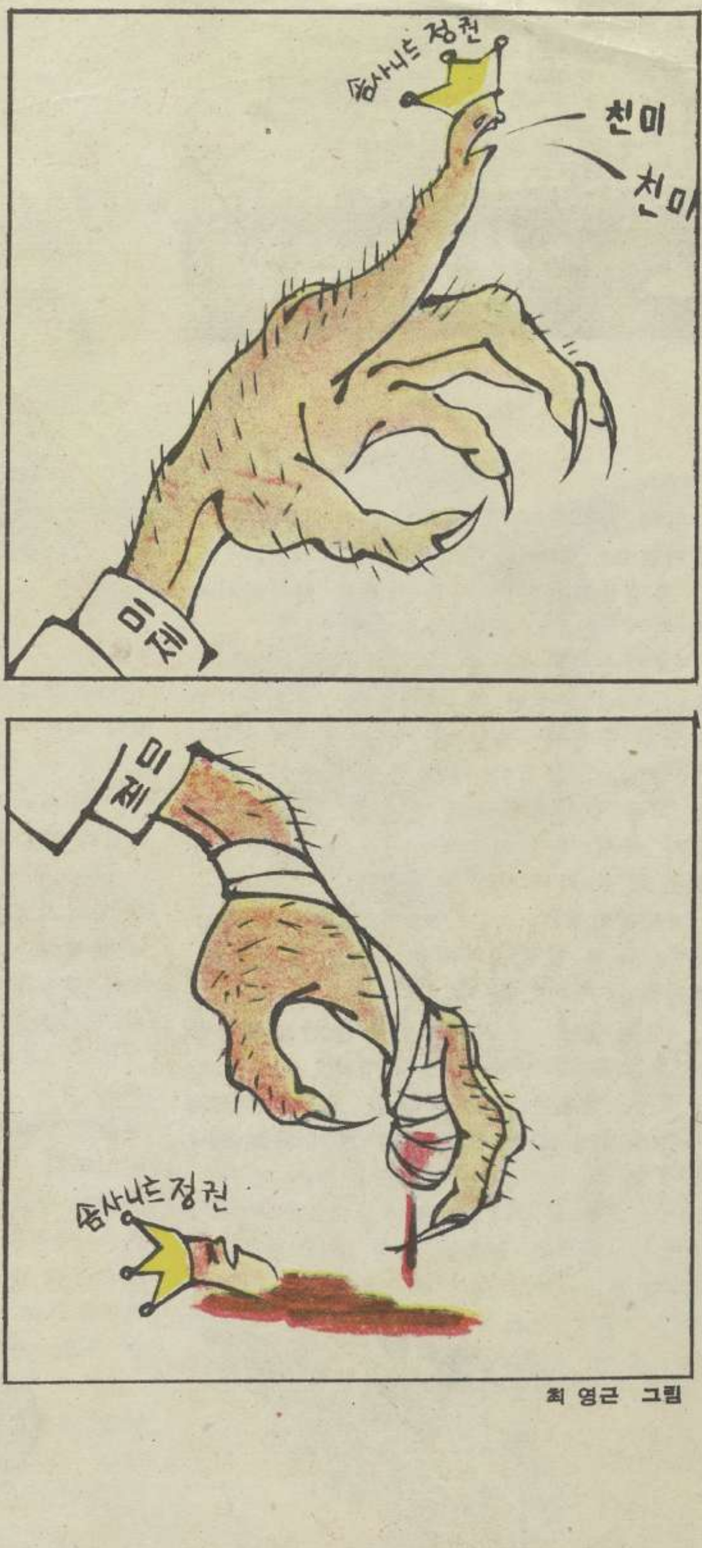
서장 뭐이? 엥이 이 자식 나가라! (소년 밖으로 나간다.) 혁신 세력을 잡아 오라니까 어디서 그따위 조무래길 붙들어 왔어!

순경 네.한 놈은 바로 지난 번 선거 때 혁신파 한데서 음식을 얻어 먹은 놈입니다.

타 번지는 불'길

최 영근 그림

라오스 정변 전후



최 영근 그림

서장 음 그거 참 좋은 자료로군, 그래 빨리 끌어 와!

순경 네. (데려 온다)

서장 너는 전번 선거 때 립후보자 한테서 술을 몇 번이나 얻어 먹었어?

최 한 서너 번 얻어 먹었습니다.

서장 옳지 인제야 단단히 걸려 들었구나! 립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하거나 음식 접대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건 당선 무효야! 그래 사회 대중당 누구야?

최 아니 올시다. 민주당이 올시다.

서장 뭐 민주당?

최 나를 료리집으로 데리고 가서…

서장 그런 건 말구 혁신 세력한테 얻어 먹은 것 말이야!

순경 임마! 돈암정 최 모의 집에 간 일 있지 않어? 내가 다 조사했다. 바로 대!

최 네네 그건 내 조카네 집입니다.

순경 조카구 뭐구 얻어 먹었지?

최 네 있긴 한 번 있습니다.

서장 그래그래 그것 말이야

최 할아버지 제사 때 가서 한 번…

서장 제사두 먹긴 먹은 거지, 그래 술을 멕이면서 뭐라구 했어?

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기운이 장사였다구…

서장 아니아니 그런 건 말구 선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댔지?

최 그 좌석에선 그런 얘기 없었구요. 다른 데서는 돈까지 주면서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서장 야 이것 봐라! 뇌물까지 먹였다! 그래 뭐라구?

최 자기에게 찬성 투표를 해 달라구요

서장 옳지옳지 인제 하나 걸려 들었구나! 제놈들도 이렇게 협잡을 허면서 우리 민주당더러 협잡을 했다구 고소까지 해? 그래 그놈 이름이 뭐야? 어? 사회 대중당…

최 아니 올시다.

서장 그럼

최 그렇게 부탁을 한 건 민주당 립후보잡니다. 그것도 최고 위원

서장 뭐이?

신 불출 만담중에서

(전호에서 계속)

이제 와서야 겁을 집어 먹기 시작한 록펠러놈은…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록펠러놈은 지난 5월 하순에 아이젠하워를 자기 방으로 불러 왔습니다.

《오후—아이젠하워, 이리 오시요! 앉으시요… 당신 골푸만 하러 댕기지 말고, 주판알맹이 투기는 법, 좀 더 연구해야겠삽내다. 자본가 돈벌이 시켜 줄줄 모르는 대통령 소용 없삽내다… 우리 미국 자본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에 큰 돈 먹은 거 다만 조선 전쟁 하나 밖에 없삽내다.》

《록펠러씨, 그건 사실과 부합되지 안삽내다. 조선 전쟁 이후에도 애급, 씨리아, 레바논, 과테말라…》

《닥치시요! 고래가 새우만 먹고 배부를 수 있삽내까? 바다 전체 뒤집어 엎으란 말입내다. 일본과 서부 독일은 제 3 차 세계 대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두 개의 화약 덩어립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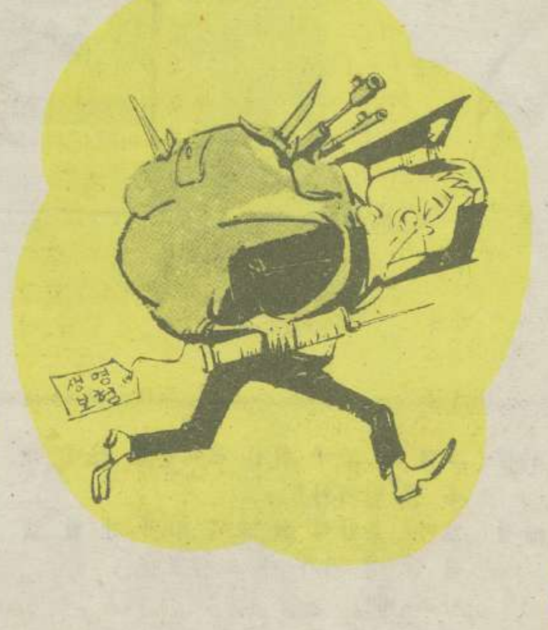
그런데 아이젠하워 당신 사업 잘못 해서 망쳐 놨습니다. 수뇌자회의 파탄시킨 거까지는 매우 좋왔삽내다.

그러나 방법 서툴러서 발목 잘렸삽내다. 아주 망했삽내다. 시방 전 세계 인민들구 일어나서 우리 미국 침략 체계, 도마우에 오른 생선처럼 토막 토막 끊어져 나가고 있삽내다. 벌써 리 승만, 멘데레스 토막났삽내다.

기시 노부스께… 오우— 야단 났삽내다! 빨리 극동 려행 떠나란 말입내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기시 노부스께, 가르시아, 장 개석, 허 정, 캄플주사 놓고 오시오. 위험하거던 생명 보험 걸어 놓고 가시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6월달에 캄플주사를 싸가지고 소위 《극동 려행》의 길을 떠났고 록펠러는 해열제를 사가지고 별장으로 떠나 갔습내다.



이 사이에 록펠러 부인과 아이젠하워 부인은 모르간과 듀—폰이 번갈아 초청하는 가면 무도회에서 매일 춤추고 술마시고 놀다가 검은 야회 무도복을 입은채 분냄새, 향수냄새, 술냄새까지 풍기면서, 뉴—욕 중심 거리로 자동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자유의 녀신상이 굽어 본다는 아메리카의 하늘 아래… 레온싸인으로 불야성을 이룬 황마의 도시, 엠파이야 스테이트 벨이라는 마천루 지붕 밑에는…

한 쪼박의 빵을 찾아서 수 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미국 로동자들의 늙은 어머니들이 캄캄한 빈민굴 속에서 피를 쏟고 있는데…… 벌거 벗은 어린 것들이 쓰레기통 앞에서 울고 섰는데……

뿌틀타운이라는 상점 앞으로 록펠러 부인과 아이젠하워 부인이 탄 자동차가 미끄러지는듯이 이곳으로 달려 왔습니다.

자동차가 머물러 서자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헐벗고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우우하고 몰려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운전수가 뛰여 내려가서 어린 아이들을 발길로 찼습니다. 그중 일곱 살 나는 소녀 하나가 쎄멘트 바닥에가 쓰러져서 슮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서 슬픈 소리를 내고 있는 소녀와는 딴 세상 사람들인 이 두 부인은 아주 멋있는 걸음 걸이로 뿌틀타운으로 들어 섰습니다.

이 뿌틀타운이라는 상점은 개가 자는 침대를 비롯해서 개 모가지에 걸어주는 진주 목도리, 개가 입는 나이롱 땐스복, 개가 쓰는 비로도 모자, 하다 못해 개가 차는 비단 기저귀까지 팔고 있는 상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를 위해서 복무하며, 개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봉사성을 높이고 있는 개상점입니다.

록펠러 부인과 아이젠하워 부인은 개에게 신겨 줄 비단 버선을 한 켤레씩 사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속에서 끝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참으로 인간이란 가치 없는 동물이예요……》

《오— 그러쿠말구요, 오늘 우리 자유 세계에서 제일 값싼 상품이 인간이니까요. 호호호호.》

《돌아다 볼 필요도 없어요》

《돌아다 보다니요. 우리 미국 정부 방침대로, 인류의 3 분지 1 원자탄으로 없애 버리는 게 옳삽내다.》

《동감이예요. 동감이예요. 전적으로 동감이예요. 호호호》

개 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록펠러나 아이젠하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건……록펠러와 아이젠하워가 개와 조곰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개중에도 유명한 도둑개들이기 때문에 이 부인들이 아마 격동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모양 갈습니다.

자동차도 살아지고, 밤은 깊었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소녀의 슬픈 신음 소리는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천대받는 로동자의 딸자식인지?

뉴—욕의 하늘 밑에서, 남조선의 하늘 밑에서, 남부 월남, 서부 독일, 대만의 하늘 밑에서 이 가슴 앞은 신음 소리들은 쉴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생각하는 전 세계의 선량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어찌 록펠러를 용서할 수 있으며 아이젠하워의 《극동 려행》을 가만 둘 수 있겠습니까?

아세아 인민들에게 몽둥이 벼락을 맞고 대가리가 부어 터진 아이젠하워를 보자마자, 록펠러는 얼마나 놀랐던지

《오후—아이젠하워, 당신 골통 어째 그렇게 커졌삽내까? 사회주의 쏘련에서는 우주 로케트가 커가는데, 자본주의 미국은 대통령 골통만 커가니 웬 일입내까?》

《록펠러씨, 아마 아세아 인민들이 나의 대머리 축구뽈로 오해하고 있는 모양 갈삽내다……》

《아이젠하워, 유치한 롱담하지 마시요!》

《록펠러씨! 이번 극동 려행 유사 이래 처음되는 개망신입내다.》

《아이젠하워, 그러면 결국 아세아에서도, 3 차 대전 절망이란 말입내까?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즉 세계 도처에 있는 추종자들을 고무 추동하는 문제와 쏘련의 로케트 력량 타진해 보는 문제, 오직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내다. 그런데…… 추종자 고무 추동하는 사업은 골통만 깨져 돌아오고, 쏘련을 타진하는 간첩 비행기들은 철벽에 부딪친 모기새끼처럼 나가 떨어지고만 있으니 오후— 모두 어떻게된 일입내까?》

《록펠러씨, 사태는 엄중하며 현실은 랭정합니다. 오후—불행한 일이지만 대포 한방으로 항복 받던 시대는 영원히 물러간 것 갈삽내다》

《아이젠하워, 당신 우리 미국의 〈힘의 정책〉 잊어버렸삽내까?》

《록펠러씨, 잘 기억하고 있삽내다. 때문에…〈말은 부드럽게 하되 항상 큰 몽둥이를 쥐고 있으라〉는 데오도르루즈벨드의 유훈 지침으로 삼고 있삽내다. 그러나 이 〈몽둥이〉 종이 몽둥이 됐삽내다! 이것은 결코 대통령 나의 책임일 수 없삽내다.》

《노우—노우—그럼 누구의 책임입내까?》

《록펠러씨, 그건 무기 제조 공장 주인인 당신의 책임입내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 아틀라스가 한 번도 떠올라가지 못했삽내다. 물론 한 번 올라 갔삽내다. 그러나 보통 축구 선수의 뽈이 더 높이 올라갔삽내다! 이거 가지고 〈힘의 정책〉 쓸 수 있삽내까?》

《돈쎄이! 대통령 당신이 보장 안하기 때문입내다. 행정적으로 보장하란 말입내다. 당신 간첩 비행기 가지고, 스파이질 잘 하면서, 어째서 로케트 설계서 한장 훔쳐오지 못합내까?》

《록펠러씨, 훔쳐낼 시간 있는 줄 압내까? 미국 간첩 비행기 쏘련 국경 넘어 서기만 하면 훔쳐내는 시간보다도 깨지는 시간이 더 바쁨내다.》

《오우—《아이젠하워, 머저리 수작 하지 마시요!》

《누가 머저립내까?》

《누가 머저립내까?》

《닥치시요! 아이젠하워, 당신 믿고 사업 못하겠삽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세파르 같은놈 내놔야겠삽내다. 죽어도 물어뜯고 죽어야 합내다. 유엔의 가면도 평화의 가면도 다 깨여진 오늘 날 공개적인 해적될 수 밖에 없삽내다!》

《록펠러씨 해적되는 거 찬성합내다. 그러나 서산에 지는 해 어떻게 합내까?…오후— 하나님 아버지시여…》

안 창수 삽화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 립 미 술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868

발 행 1960. 9. 10

(값 40전)

교훈을 잊지 말라!

8034
Хвальсаль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д.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N8034

조 명식 그림